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개회식(2022. 6. 15.)

축 사



2022. 6. 15.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기관 대표단, 그리고 게스트 여러분!

AACC 연구사무국의 제3차 연구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생명권’이며, 이는 AACC 연구사무국의 금년도 공동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Life는 한국어로 ‘생명’ 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명’ 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의미 외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을 비유하는 말로도 자주 쓰입니다. 언어는 다를지라도 생명 (Life)의 중요성은 AACC의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입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생명권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와 헌법상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에 관하여 각 회원기관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의 영역에서 ‘생명’ 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고민을 나누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게스트로서 유럽인권재판소와 일본 쓰쿠바 대학에서 참석해주신 연사들의 발표를 통해 배움과 사고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도 가질 것입니다. 생명권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와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AACC 연구사무국에서 정례 개최하는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는 우리의 공동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AACC 회원기관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 다음 번 국제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기관들의 대표단 여러분이 서울에 직접 모여 우의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회원기관의 헌법재판에 기여하고 계시는 최고의 실무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오늘의 뜻깊은 회의를 축하하며,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